

에너지 대전환시대 해상풍력 육성 머리 맞댔다

전남도, 국회서 국제포럼 개최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등 강조

해상풍력 인허가 원스톱 처리기구 신설을 위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 전기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이 동떨어진 현재의 중앙 집중형 전력 시스템 구조를 개편하는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등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남도가 해상풍력 중심의 미래 청정에너지 대전환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거스를 수 없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 해상풍력'을 주제로 국내외 석학, 기업 및 각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전남도는 23일 국회에서 김원기·양이원영 국회의원과, 녹색에너지연구원, 한국풍력에너지학회와 함께 해상풍력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및 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한 '2022 해상풍력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행사를 공동 주최한 김원기·양이원영 의원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김한정·김성환·김희재(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인선(국민의힘) 의원, 양향자(무소속)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새로운 국제질서로 자리잡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해상풍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공유했다.

여기에 아이니 엔센 주한덴마크대사, 케리 정 미국 에너지수석담당관이 참석하고, 페터 빙클러 주한독일 부대사가 축하영상물을 보내오는 등 해상풍력 산업의 선두주자인 유럽·미주 주요국 주한 대사관에서도 자리를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발제자로 나선 에스퍼 홀스트 COP코리아 공동대표는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 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재생에너지 비용 절감과 글로벌 탈탄소 협정에 따른 에너지 전환 가속화, 해상풍력의 급속한 성장 등을 전망했다.

전수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상임이사는 기후변화와 맞물려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는 RE100의 국내외 현황, 국내 기업의 RE100 달성을 위한 해상풍력의 주도적 역할과 선결 과제에 대해 제안했다.

넌시 네베안 벨기에 겐트대 박사와 한스 죄렌젠 덴마크 신재생에너지 컨설팅 기업 대표는 수산업과 해상풍력 공존 자국 사례를 소개했다.

이장호 한국풍력에너지학회장을 좌장으로 진행



23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 해상풍력 국제포럼'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주요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제공>

된 종합토론에서는 이경수 산업부 재생에너지보급과장, 강금석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실장, 광성조 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글로벌발전연구소장, 유태승 COP코리아 공동대표, 박종호 ㈜효성 ESG팀장 등 정부와 국책 연구기관, 발전사, 재생에너지 수요 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해상풍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혜를 모았다.

박종호 팀장은 "유럽연합 탄소국경세 도입, RE

100 등 비관세 장벽이 기업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은 전세계 협력업체에 탈탄소화를 촉구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전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며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시급성을 강조해 공감을 끌어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신안의 세계 최대 8.2GW 해상풍력단지를 포함해 계획용량 30GW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청정에너지의 메카, 전남'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최근 정부가 2030년까지 1.9GW 풍력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풍력 발전량 비율을 현재 87대 13에서 60대 40으로 조정하기로 발표해 전남 해상풍력산업이 한층 속도감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수산업·해상풍력 공존화 쟁점

24일 전문가 초청 국제세미나

전남도가 23일 국회에서 '2022 해상풍력 국제포럼'을 개최한데 이어 24일 벨기에 겐트대, 목포대와 합동으로 수산업과 해상풍력의 공존기술 개발 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완도군 해조류와 전복양식장을 방면해 공존 모델 개발을 위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수산업과 해상풍력 공존 방안 마련을 위해 192억원의 용역비를 투입해 세계적인 전문

가, 관련 기업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전남의 해상풍력단지를 글로벌 수산업·해상풍력 공존 표준 모델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24일 국제세미나에서는 수산업과 해상풍력 공존방안에 대해 선도적인 연구를 수행중인 벨기에 겐트대 넌시 박사와 덴마크 미들그룬델 해상풍력의 한스 박사를 초빙해 구체적인 실질적인 공존방안에 대한 사례를 직접 들어볼 예정이다.

특히 겐트대 수산업연구소센터장을 겸하고 있는 넌시 박사는 유럽 북해 해상풍력단지에 해조류 양식과 홍합 등 패류양식 시스템을 개발해 실

증연구중이다.

또 덴마크 신재생에너지 컨설팅 대표인 한스 박사는 미들그룬델 해상풍력단지의 시설부터 운영까지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해상풍력산업은 전남의 미래 에너지원이며 주축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기존 수산업과 어떻게 함께 발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해의 사례 검토를 통해 전남 수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지방재정대상 지방세 분야 '최우수'

체납징수 우수사례 선정 장관상

전남도가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체납징수 우수사례인 '사행행위 취소, 이제는 소송이 답이다'를 발표해 최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선 지방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행안부 주관으로 지방세 분야에서 체납징

수 6건, 세무조사 6건, 벤치마킹 4건 등 분야별 서면심사를 통과한 16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6명이 평가했다.

체납징수 우수사례의 경우 행안부 자체 사전 심사를 통해 전국 15개 지자체 중 6개 지자체가 이날 발표를 했다. 심사는 시도별 체납액 징수실적 40%, 사례 및 발표 60%를 반영해 이뤄졌다.

전남도 대표사례로 발표된 순천시의 '사행행위

취소, 이제는 소송이 답이다'는 코로나19로 대면 징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질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징수기법이다. 세무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통해 체납자가 고의 면탈목적으로 은닉한 재산을 원상회복함으로써 2억여 원을 징수한 것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수행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줄이거나 채무액을 늘려 채권자에게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행위다.

전남도는 사·군과 함께 합동체납징수 기동반을 편성, 연찬회를 통한 우수사례 공유 등 다양하고 강

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 10월 말 현재 이월체납액의 41.7%인 330억원을 징수, 최근 3년간 코로나19로 어려운 징수여건에서도 전국 평균 징수율(35.9%) 보다 월등히 높은 징수율을 기록했다.

홍재열 전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성과는 징수기법 개발 환경이 열악함에도 징수 담당공무원들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징수 의지가 일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신세원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를 통한 세입증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물 절약 자치구 교부금 더 받는다

광주시 30억 차등 배분

광주시가 자치구별로 수도물 절감량을 평가해 교부금을 차등 배분하기로 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5개 자치구별 물 사용량을 전년과 비교해 절감 성과에 따라 교부금 30억원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 범시민적 절수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시 위기 대응 가뭄 극복 추진단은 이날 두번째 회의를 열어 모든 부서, 자치구 통장단 등이 참여해 수도 밸브 조정을 통한 수압 낮추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5급 이상 간부들을 동별, 아파트 단지별 책임관으로 지정해 수압 저감을 독려하고 있다. 시와 자치구는 단독주택, 상가까지 밸브 조정 활동을 확대하고 대중목욕탕, 세차장, 수영장 등 물 사용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한 절수 홍보도 강화한다.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세대별 수압 저감사업으로 효과적으로 물 절약을 실천하는 방안"이라며 "시, 자치구 협조체계를 가동해 시민 절수 실천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어울림마을 조성사업

전남도, 16곳 선정

귀농산어촌인 정착 지원

전남도는 귀농산어촌인과 지역주민 간 갈등 해결과 따뜻한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사업'에 16개 마을을 선정,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

응모한 9개 시·군 22개 마을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현장평가와 서류평가 등 공정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함평 창서마을, 장흥 용두마을, 보성 은림마을, 무안 북룡마을 등 9개 시·군 16개 마을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마을은 지역 특색에 맞는 작물을 선택해 경관 조성을 위한 나무, 꽃 구입비와, 마을 사랑방 운영과 공동텃밭 가꾸기 등 마을주민 융화 프로그램 운영 비용으로 1500만원씩을 지원받는다.

정광선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매년 4만 명이 제2의 인생을 찾기 위해 전남 농어촌으로 오고 있다"며 "지역주민과 귀농산어촌인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마을 공동체 문화 확산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대지점, 통광주지점, 각학지점